

#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 문자의 뿌리

세계문자연구회 엮음 《세계의 문자》

인류 최초의 문자는 기원전 3천년 경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문자를 통해 인류는 서로의 마음과 기억을 전했다. 동서고금과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자들은 곧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최근 출간된 《세계의 문자》(김승일 옮김)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문자의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자연형상과 생활주변의 물건을 표현한 그림문자에서부터 고대 상형문자인 이집트문자, 설형문자, 에게해 지방의 고대문자, 아라비아 알파벳문자, 한자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에서 생생소멸된 술한 문자의 세계를 간추려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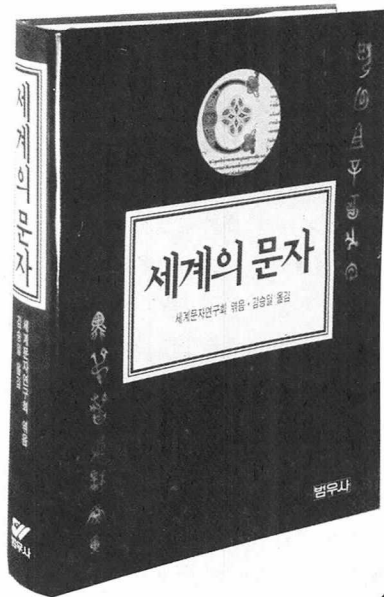
## 그림문자에서 설형문자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된 수메르 지역에는 점토판과 인장에 새긴 그림문자가 나타난다. 주로 왕의 궁전과 신전의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이지만 완전히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집트 역시 문명 발달 단계에 기원전 3100년경 이미 상형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인더스강 유역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서는 독특한 문자가 새겨진 700개 가량의 돌도장이 발굴됐다.

이스터섬에는 인더스문자와 유사한 ‘롱고롱고’ 문자라는 것이 있다. 원주민들이 ‘코하우’(롱고롱고)라 부르는 나뭇조각 껍질에 뿔뿔이 기록한 문자도 발견됐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시작된 마야문명에도 상형문자가 나타난다. 건축재료인 돌에 조각한 것 등이 남아 있는데 달력상의 연수를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마야문자 중에 날짜와 달을 표시하는 문자를 많이 발견했는데, 마을 이름과 왕명을 나타내는 성각문자도 발견됐다. 마야문명보다 훨씬 뒤인 13세기경 일어난 아즈텍 문명도 상형문자와 그림문자를 사용했다. 떠나는 부족장과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추장 등 적지 않은 문자가 해독됐다.

문자 이전에 문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는 매듭을 묶어 의사를 전달한 매듭문자가 있다. 안데스 고대문명에서는 문자 대신 ‘퀴푸’라 부르는 새끼매듭을 사용했다. 새끼의 색깔과 묶는 방법에 따라 특정 숫자를 표시했는데, 인구조사와 납세 등의 수량표기에 썼다. 이런 방법은 지금도 페루 목축민들 사

최근 출간된 《세계의 문자》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문자의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자연형상과 생활주변의 물건을 표현한 그림문자에서부터 고대 상형문자인 이집트문자, 설형문자, 알파벳과 한자 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생생소멸된 술한 문자의 세계를 그대로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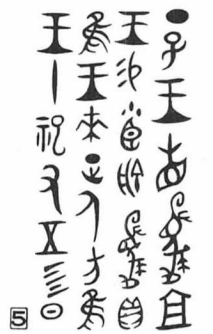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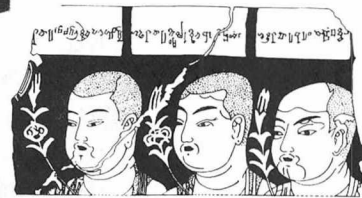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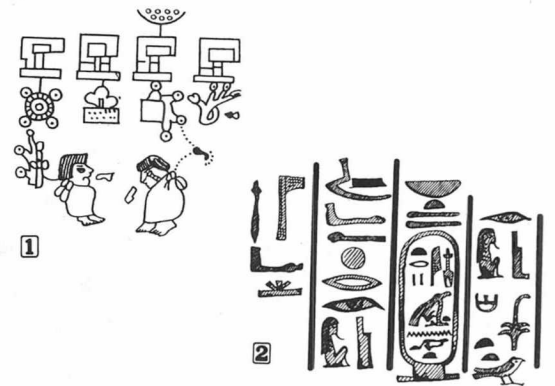
이에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천조각을 묶은 매듭으로 기록을 대신했는가 하면, 북아메리카 인디오들은 조개껍질을 염주처럼 엮어 약속을 표시하기도 했다.

상형문자는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가 대표적이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발견한 로제타석의 문자 해독으로 ‘히에로글리프’ 문자의 해독에 큰 진전이 있었다. 설형문자(썰기문자)는 기원전 1세기경에 이르기까지 3천여년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며 서아시아 일대 공용문자로 자리잡았다. 점토판에 글씨를 새길 때 갈대줄기나 금속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펜으로 힘주어 쓰자 썰기모양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직선을 추가해 독특한 문자로 탄생한 것이 썰기문자이다.

설형문자는 일명 수메르문자라고 하는데 수메르지방의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는 단정한 글자체의 설형문자가 새겨져 있다. 아시리아의 설형문자로는 1845년 발굴된 《길가메시 서사시》가 ‘노아의 홍수 전설’을 입증하기도 했다. 설형문자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를 매개로 여러 민족에게 전파됐고 페르시아가 독자적인 설형문자를 사용했으며, 알파벳 이전의 시리아 팔레스티나에서도 사용됐다.

## 알파벳과 한자문화권

그리스 해역인 에게해에서는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에게문명(미노아문명)이 번창했다. 크레타섬의 크노소스 궁정 같은 유적에는



① 떠나는 부족장과 이별을 슬퍼하며 우는 추장(아즈텍 문자).  
 ② 벽화에 첨사한 채색 히에로글리프.  
 ③ 《코란》의 쿠크체(아라비아 문자).  
 ④ 벽화의 트카라인상에 써어 있는 굽타문자.  
 ⑤ 은대 말기의 금문.

돌에 새긴 인장 명판과 점토 덩어리에 기록된 문자들이 발견됐다. 셈족에서는 여러 문자들, 즉 가나인들이 창안한 시나이 문자, 고대 페니키아의 비브로스 문자, 팔레스티나에 침입 정착한 헤브라이인의 문자, 비브로스 문자의 영향을 받아 22개 자음으로 구성된 페니키아 문자, 페니키아 식민지였던 이베리아문자, 고대 리비아문자 등이 발달했다.

아라비아문자도 셈계 문자로부터 왔는데 이슬람교 발전과 함께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와 중국 일부에 퍼졌다. 아라비아문자로 기록된 경전 《코란》이 언어권의 장벽을 넘어 원문 그대로 보급된 데서도 알 수 있다. 《코란》은 신의 말씀이므로 기록된 아라비아어 그대로 읽어야 했기 때문에 이란·터키·인도에까지 널리 전파됐다.

알파벳은 그리스 첫 두자 즉 알파와 베타에 뿌리를 둔다. 예컨대 ‘A’는 소머리 내지 가축이라는 의미인데 헤브라이어로 ‘아레프’라고 하며 알파라는 이름을 붙였다. 알파벳의 순서에 대한 의문은 수수께끼로 남는데 대개 입술에서 목구멍으로, 전설(前舌)에서 목구멍 안쪽으로 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파벳으로는 그리스·코트·콤포트·

아르메니아·그루지아 문자가 있다. 라틴 알파벳, 즉 로마자는 로마의 정치적 팽창과 더불어 서방세계에 널리 전파됐다. 간편한 소수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편리함 덕분에 로마자는 널리 쓰였다.

문자 분포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는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중국문자다. 한자 역시 중국문화의 확대와 함께 한국·일본·베트남으로 받아들여져 한자문화권을 형성한다. 19세기 말 은대 유적에서 갑골문자가 발견됨으로써 한자 역시 물건의 형상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됐다. 갑골문과 더불어 발달한 금문, 7음이 할거했던 전국시대의 고문, 진나라 때 문자 통일정책으로 만든 전서와 예서 등이 발달했다.

한자문화권으로는 거란문자, 여진문자 서하문자, 베트남의 추놈문자 등이 있다. 한국에서의 한자문화는 강한 영향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한자문화는 인쇄술이 특기할 만하다. 11세기초 고려에서 방대한 대장경판이 주조됐는데, 이후 두번째 대장경은 판본이 8만 1천여개에 이르러 활자인쇄로서 세계 최고라는 영예를 갖고 있다. — 김지원 기자

범우사/A4/570면/70,000원

#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씨앗들

헨리 홉하우스 지음 《역사를 바꾼 씨앗 5가지》

모든 “역사는 다시 쓸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롭게 읽혀진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과거의 매력에 빠져든다.

《역사를 바꾼 씨앗 5가지》(윌리엄 홉하우스 지음)는 식물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왔다는 신선한 시각을 던진다.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이 왜 유럽 지배를 포기했는가. 유럽이 지중해 대서양을 벗어나 세력권을 넓히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식물’ 곧 5가지 씨앗이라 말한다. 5가지 씨앗이란 키니네·설탕·차·면화·감자다. 16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약 4백년 동안 이 5가지 씨앗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간의 욕구는 역사의 결정적인 장면전환을 가져왔다.

## 열병을 몰아낸 신비한 ‘키니네’

1638년, 지금의 페루 총독관저에 그의 아름다운 부인이 말라리아 열병에 감염돼 앓아 누워 있다. 생사를 오가는 부인을 치료하는 궁정 의사는 총독에게 안데스 북부에서 나는 ‘기나피’(키니네의 원료)를 써보라고 간곡히 제의한다. 결국 기나피를 사용한 부인은 깨끗이 완쾌됐다. 키니네로 치료받은 최초의 유럽인으로 기록된 백작부인은 1640년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갈 때 기나수 껍질을 가져간다.

이것은 곧 화학요법과 합성화학의 거대한 진보였고, 열대지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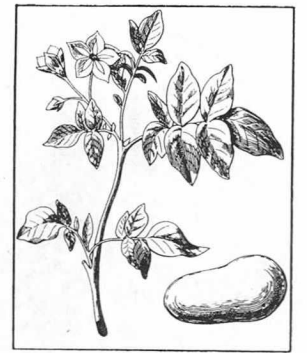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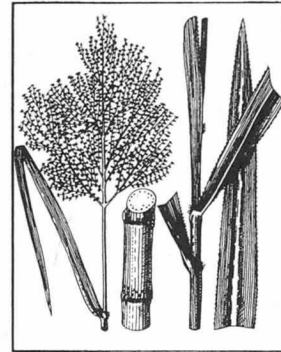
**키니네는 치명적 질병인 열병을 몰아냈다. 설탕은 약명 높은 노예무역의 원인이 됐고, 차는 중국의 세련된 문화를 쇠퇴하게 만들고 말았다. 면화는 19세기의 가장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감자는 아일랜드의 역사를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을 정착, 이주하게 한 전주국이였다. ‘키니네’라는 신비한 씨앗은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열병’을 몰아냈고 비싸긴 했지만 치료제로 널리 알려졌다. 유럽으로의 기나피 수출업은 번창했다. 남북전쟁 때 북부의 봉쇄정책으로 남부는 키니네 부족의 곤경에 처할 만큼 새로운 무역업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영국은 고갈돼가는 기나피 대책을 찾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대부분을 통치하게 됐다.

키니네의 대용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콜타르 화학을 탄생시켰다. 색소(1850년대)와 폭약(1860년대) 사카린(1892년) 아스피린(1904년) 등의 개발이 멀고도 험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역사를 움직인 두번째 씨앗의 주인공은 ‘카리브해를 검게 물들인 설탕’이다. 설탕은 노예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수계 중 하나다. 1800년대 초기 설탕 그릇에는 ‘노예들이 만들지 않은 동인도 설탕’이라는 광고문구가 등장할 만큼 설탕과 노예는 윤리적인 문제로 확산돼 있었다. 유럽인의 설탕선호와 증독은 대서양을 사이에 둔 약명 높은 노예무역의 원인이 됐다.

설탕 가격의 앙등은 유럽 전역에 인플레이션을 몰고왔으며 나날이 증가한 설탕무역으로 설탕과 해군력, 상업정책, 자본투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놓였다. 그 가운데 흑인노예문제는 심각했다. 강제로 이주되어 백인들의 설탕



역사를 바꾼 5가지 씨앗들. 왼쪽부터 설탕·차·키니네·면화·감자

중독의 희생자로 일했던 서인도 제도의 원주민들은 오늘날의 인종차별 문제의 뿌리이기도 하다.

## 중국의 문화를 쇠퇴시킨 ‘차’

16세기에 영국에 차가 소개된 이후 유럽인들에게 차는 일상적인 식품, 비알콜음료로 선호됐다. ‘부족한 것이 없던 중국’이 오직 ‘광둥’을 통해서만 문물거래를 이뤘던 탓에 유럽인들이 즐기는 차거래는 모두 중국 광둥에서 유럽동인도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광둥에서 차를 실어나르는 중량급 선박은 2백척이 넘었는데 해마다 그 중 3분의 2가 유럽에 도착했다. 불법적인 밀매도 성행했다.

엄청난 유럽의 차 소비량을 감당했던 중국과의 거래에서 유럽 각국은 인플레이션이 야기됐고, 그 해결책으로 아편이 제시됐다. 인도에서의 독점판매권을 쥐고 있던 동인도회사는 중국의 ‘아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아편을 수출했다. 1776년 60톤, 1790년에는 그 5배나 되는 아편을 중국에 수출했다. 당시 광둥에서 차에 대한 아편가격의 비율은 40대 1로 아편이 훨씬 비쌌다.

“중국의 모든 무역은 서양에 개방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유럽과의 전쟁에서 중국은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다. 결국 중국의 그 세련된 문화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씨앗의 또 하나는 면화다. 전세계적인 면직물 제조업은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룬 첫번째 요소였다. 미국 남부에 도입된 면화는 전세계 수출량의 3분의 2를 생산해 낼 만큼 중요한 환금작물이었다.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 노예제도가 필요해졌고 노예제도와 면화간의 연합은 시작됐다. 1808년 이후 미국 외부에서의 노예 수입은 불법이었으나 해마다 면화의 수요 급증으로 노예의 가치와 가격은 나날이 치솟았다. 가난하지만 시원하고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던 옛 남부지역은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아프리카와 서인도제도에서 다시 노예를 수입하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 남부의 면화재배로 인해 전적으로 노예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형성됐다. 결국 이런 상황은 19세기에 가장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야기시키고 말았다.

감자는 아일랜드의 역사를 바꾸었다. 1845년에 시작된 감자 흉년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거대한 인구층을 미국으로 집단 이주케 했다. 대기근에서 시작된 아일랜드 이주민 수는 매년 10만명을 웃돌았다.

미국에 도착한 아일랜드인은 독자적인 규범을 정하고 압력단체를 형성했다.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방도 아일랜드인들의 입에서 가장 거세게 쏟아져나왔다. 이들은 미국을 최고의 반제국주의자로 비꾸어놓았으며 2차례의 세계대전에 미국이 개입하는 시기를 지체시켰다. 지금도 영국의 정치적 외교적 노력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는다.

씨앗을 둘러싼 인간의 크고작은 욕구들, 그것이 곧 우리 역사의 모습이다. 결국 이 책은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만 진보하지 않으며 자연은 우리의 진보를 중단시킬 수도 전척시킬 수도 있다”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가르침을 일깨우고 있다. — 김지원 기자  
세종서적/A5신/390면/8500원

